

# 내 집 앞 눈 쓸고 수도관·보일러 배관 동파 막아야

광주·전남 한파·폭설 피해 방지 대책  
눈길 교통혼잡 해소 대책 필요  
양식장 사전 출하가 최선  
축사 받침대 설치 붕괴 예방을

요하지만 사·도민들이 내 집 앞 눈을 직접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19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로도와 주요 도로에 집중되는 제설 작업을 고려하면 마을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제때 이뤄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추위에 따른 수도관과 수도 계량기, 보일러 배관 동파 대피도 필요하다. 노출 부위를 헨 옷으로 감거나 보온재로 돌돌 말아주면 웬만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장기간 외출 시 난방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수도꼭지 운수를 조금 틀어놓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축산·어업시설 보온재 보강, 붕괴·화재 대비  
도 =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시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고정근을 튼튼히 매주고 지붕에 쌓인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해야 한다. 시설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외부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으므로 걷어두거나 비닐을 벗겨줘 줘야 한다. 전기와 화기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화성 물질,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

고추,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작물은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서 야간에는 시설 내 최저온도를 과체류는 12도 이상, 영채류는 8도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많은 눈이 내려 농업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농작물이 어는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비닐 또는 부직포 등을 덮어 농작물을 최대한 보온하고 파손된 부분을 빨리 보수해야 한다. 시설물이 완전히 무너졌을 경우, 피해 상황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빨리 신고하고 복구지원을 받도록 한다. 축산 농가는 축사 내부 받침대를 설치해 붕괴를 예방하는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 상태나 개폐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양식 어가에서는 저수온기 이전, 사전 출하가 최선이다. 하지만 강추위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시설물 보강과 영양제 공급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농성어, 돌류, 조기, 쥐지 등은 저수온에 취약해 양식 어가에서는 사료공급량 조절, 영양제 공급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박준택(사진 맨 오른쪽)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2월 초 저수온기를 앞두고 완도군 신지면 완도활어영어조합법인 넙치 양식장을 찾아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영양제 공급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저수온기 영양 공급을 강화하면 동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제공>

당부했다. 또한, 축제식 양식장에서는 동사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장 평균 수심을 3m 이상으로 유지하고, 면적의 1% 이상을 활동장으로 구획해 보온 덮개를 설치하고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상양식장은 정전 발생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를 점검해야 한다.

박인배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연구개발팀장은 “저수온기 이전에, 사전 출하해 사육 밀도를 낮추는 게 최선이지만 강추위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양식장별 보온 시설과 장비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며 “양질의 사료를 사전에 공급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을 키우고 육상 양식장의 경우 폭설에 따른 지붕 붕괴 등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문 대통령 “코로나 조기 극복, 국민 일상 찾을 것”

청와대서 신년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신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확산세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고평을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로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가시권”이라며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갖춘 코로나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며 “돌봄·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했다.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국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을 만들었다. 12월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이며 ‘주가 3000’ 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도 역대 최고”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의 맥박이 더 힘차게 뛰며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쁨을 다지겠다”며 “저탄소 사회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텃밭 광주서 ‘이낙연의 사면론’ 반대 목소리

“여당 대표 새해 첫 메시지에 분노”  
광주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제안을 놓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 내에서는 이를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사실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봉합’ 수순을 밟는 듯 보였지만, 광주지역 사회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5·18 관련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

상자회·기념재단)는 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참회조차 할 줄 모르는 희대의 범죄자들에게 사면건의가 웬말이냐”면서 “광주시민사회는 결단과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심판과 청산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인 그들을 사면할 까닭이 무엇이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작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정치검찰, 사법적폐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고, 온 국민의 트라우마가 된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상규명이 끝나지도 않았고, 책임을 묻지도 못했는데 그들의 사면요청이 가당키나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집권여당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K-방역 역시 촛불을 가슴에 품었던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희생으로 가능했다”면서 “그런데 새해벽두부터 집권여당의 대표가 내놓은 새해 메시지야 국민에 대한 위로와 감사, 희망이 아닌 실망과 분노를 겪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대표가 진정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재난 상황 속에서 더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면 논의로 촛불 국민의 실망과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와 의지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